

전남도 '전국체전 성공' 힘 모은다

22개 시·군, 교통대책 수립·음식점 바가지 요금 근절 캠페인 진행 자원봉사자 4000명·도민응원단 1만5000명 운영... 대회 지원 활동

전남도가 15년 만에 전남에서 열리는 '제104회 전국체전'과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의 성공 개최를 위해 22개 시·군과 일심동체가 돼 숙박, 안전, 교통, 환경, 문화행사 등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 열리는 만큼 약 4만 명의 대규모 선수단과 함께 많은 관람객이 지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전남도와 각 시·군은 선수단과 관람객 편의를 위해 주요 거점 연계 셔틀버스 운행, 임시주차장 조성 등 교통대책 수립, 숙박·음식점 실태 전수 조사, 바가지 요금 근절 및 친절 캠페인, 도심환경정비 등 손님맞이를 위해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다. 특히 주 개최지 목포에서는 지난 7월 12일 23개 동 주민과 사회단체 회원 등 600여 명이 참

석한 가운데 대규모 방문객 맞이 교통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어 26일에는 숙박업소 영업주와 종사자 200여 명이 친절 서비스, 착한 숙박요금 제공, 쾌적한 숙박환경 조성 등을 결의했다.

각 시·군에서는 도민의 자발적 참여로 모집된 자원봉사자 4000여명과 1만5000여 도민응원단 운영을 통해 대회 운영지원, 관람객 안내, 선수 사기를 높이기 위한 열띤 응원 등 대회 분위기를 고조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와 22개 시·군 운영부는 긴밀히 협조해 도민 관심도와 참여 제고를 위해 8월부터 9월 사이 주요 도로, 육교, 교통요충지에 현수막, 홍보탑 설치 등에 나선다. 각 지역 새마을회, 주민자치회, 이통장회 등도 앞장서 전국체전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과 도민참여 캠페인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22개 시·군 전 지역 147개 구간에서 이뤄지는 생활봉송 준비도 도민의 자발적인 협조로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 봉송주자로 참여하는 체육인, 청년 등도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성공개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다.

개·폐회식이 열리는 주경기장인 목포종합경기장은 공정률 98%로 순조롭게 마무리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8월까지 장애인체육시설인 반다비체육센터 등 각종 체전 경기장 총 80개소(신축 5개보수 75)의 공사를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강인중 전남도 전국체전기획단장은 "대회에 출전하는 모든 선수가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한껏 발휘해 맘 풀린 성과를 거두도록 경기장과 편의시설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코로나 일상회복 이후 개최되는 체전인 만큼 문화·예술·역사 등 다양한 볼거리와 문화행사 등을 통해 국민께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 모두가 하나 돼 즐기는 체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9월까지 온열질환 감시체제

광주시, 재난대책 점검 회의... 25개 의료기관 응급 체계 가동 등

광주시가 기상청·경찰청 등 지역 유관기관과 함께 가뭄, 장마, 폭염, 태풍 등 여름철 자연 재난 예방에 나선다.

광주시는 31일 오후 시청 총무실에서 광주시 방기상청·광주지방경찰청·31사단·503여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여름철 자연재난대책 중간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역대급 가뭄과 장마, 폭염에 이은 '엘니뇨' 발달에 따른 강력한 태풍 발생 등이 우려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이날 회의에선 고령 농업인, 독거노인, 공사장 야외근로자 등 이른바 '폭염 3대 취약자' 피해 예방책 마련에 집중했다. 또 지난 장마기간 발생했던 토사유실, 침수피해 등에 대한 대처 내용과 후속조치 계획, 하천 범람 대응방안 등을 기관별로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광주시는 일단 오는 9월 30일까지 폭염대책기간으로 정하고, 25개 의료기관을 통한 온열질환 감시체제와 폭염 구급대 운영 등 응급 구급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또 그늘막 576개소와 도로 살수분사장치 2개소, 그린통합쉼터 2개소, 물안개 분사장치 24개소 등 폭염저감시설도 마련해 운영

한다.

특히 폭염에 취약한 독거노인과 거동이 불편한 시민이 폭염을 피할 수 있도록 경로당과 행정복지센터 등에 무더위쉼터 2063개소를 지정하고, 올해부터는 포털사이트 네이버 지도에 '무더위쉼터'를 검색하면 위치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독거노인 등 폭염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 자율방재단 등 2080여 명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했으며, 자치구와 협조를 통해 매일 안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가동하도록 했다.

시는 이밖에도 유관부서와 자치구를 통해 강풍 피해에 대비해 야외 시설물, 간판 등에 대한 고정·철거 등 사전조치를 하고, 대형공사장과 건축·철거 현장 등 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에도 나설 예정이다.

문영훈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시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온열 질환 예방체제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면서 "특히 폭염 3대 취약자인 고령 농업인, 독거노인, 야외근로자 등에 대한 폭염 피해 예방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조정·도시경관 전문가 찾습니다

도시공무원 14명 공개 모집... 18일까지 신청

광주시는 '8월 1일부터 18일까지 위촉직인 도시공무원위원회 위원 14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오는 9월 14일 현 도시공무원위원회의 임기 만료에 따른 것이다.

모집분야는 ▲조정(공원·녹지·산림) ▲도시경관(디자인·조명) ▲도시공학(건축·토목·도시계획) ▲도시생태(수질·환경) 등이다.

도시공무원위원회는 광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 공원 조성계획의 심의, 도시녹화계획의 심의, 이밖에 공원녹지와 관련해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수행하게 된다.

위촉된 위원은 2023년 9월 15일부터 2025년 9월 14일까지 2년간 도시공무원위원회에 소속돼 활동하게 된다.

응모자격은 공원·녹지·산림·도시계획·경관·도시생태·환경 등 공원녹지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대학 또는 대학교의 관련분야 조교수급 이상인 자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분야별 기술사로서 5년 이상인 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소 및 연구원중 연구책임자급 이상인 자 ▲관련분야에서 5급 이상의 공무원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이다. 다만 도시공무원위원회 1회 연임자 및 광주시 산하위원회 중 북(3개) 위촉된 자는 위촉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도시공무원위원회 위원 응모 희망자는 광주시 누리집(홈페이지) 시정소식-고시공고란을 참고해 지원서와 관련서류를 8월 18일까지 직접 접수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메일(gimhd219@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신원력추진본부 도시공무원과(062-613-4221)로 문의하면 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영록 전남지사가 31일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다목적홀에서 개최된 '2023 로컬 콘텐츠 페스타' 행사에서 내빈들과 홍보관을 둘러보고 있다 <전남도제공>

'개성 만점' 전남 콘텐츠 호평

순천 '로컬 콘텐츠 페스타' 18개 지자체 참가... 홍보관 부스 운영

전남도가 경기, 부산 등 전국 18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2023 로컬 콘텐츠 페스타'에서 다채롭고 독특한 개성 만점의 콘텐츠를 선보여 관람객의 호평을 받고 있다.

전남도는 2일까지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열리는 이번 로컬 콘텐츠 페스타에 종합홍보관, 남도장터홍보관, 고향사랑기부제홍보관을 설치해 우수한 콘텐츠로 지역의 매력을 알리고 있다.

종합홍보관에서는 전남도의 강점과 비전, 역점

시책을 소개하고 올해까지 2년간 이어지는 전남도 방문의 해를 비롯해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2023 김대중평화회의, 전국체육대회와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국제농업박람회 등 5대 초대형 행사(메가 이벤트)와 함께 지역 가치 창출가(로컬 크리에이터)를 집중 홍보하고 있다.

특히 지역 가치 창출가로는 목포지역 청년 정착을 지원하는 상생 브랜드 기업 ㈜공공장장, 순천 기반 사회적 벤처기업 ㈜유익컴퍼니, 여수 지역관

광 로컬 콘텐츠 기업 ㈜어수와, 나주의 복합문화공간 ㈜3917마중, 담양의 아트 슈즈(Art Shoes) 브랜드 뮤지엄재희 등 대표적 지역 콘텐츠 기업이 참여했다.

전남의 신선한 농수축산물 종합소품몰인 남도장터 홍보관에서는 영광 찰보리빵, 구례 산수유청, 완도 해조류 등 전남 50개 업체의 우수 제품을 전시·판매하고, 화순 커피농장 '두베이 커피플랫폼'이 참여해 전남에서 생산한 커피를 현장에서 선보인다. 고향사랑기부제홍보관에서는 광양, 구례, 고흥, 강진 등 주요 시·군의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을 소개하고, 이미 38만명이 가입해 화제가 된 '전남 사랑에 서포터즈' 홍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 도심 속 물놀이시설 안전 점검

광주시가 도심 속 물놀이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 점검에 나선다.

지난 31일 광주시에 따르면 8월 1~2일 임곡교 일대와 광주 시민의숲 물놀이장, 산동교 친수공원 야외 물놀이장을 점검한다. 이번 긴급 점검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전국적으로 물놀이 사고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광주시와 자치구·시설물 운영자들이 합동으로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상태와 안전요원 근무 실태, 시설 주변 위험 요소 등을 확인한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고 시설 관리 주체가 보수·보강 조치를 하도록 지속해 관리할 계획이다.

박남주 광주시 시민안전실장은 "지역 물놀이시설에 대한 수시 안전점검을 통해 시민이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협

힘으로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광주문화신협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4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9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

